

<서평>

깻잎 뒤에 가리어진 ‘우리’의 얼굴 우춘희, 『깻잎 투쟁기』, 서울: 교양인, 2022.

부 경 환*

나는 ‘깻잎파’이다. 고깃집에서 상추와 깻잎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고민할 것 없이 깻잎을 고를 것이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항상 사는 품목 가운데 하나도 바로 깻잎이다. 투명한 비닐 포장 안으로 보이는 깻잎이 크고 싱싱하면 괜히 흐뭇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깻잎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생각해본 적도, 궁금해한 적도 없다. 그저 내 관심사는 오늘 사는 깻잎의 상태가 어떠한지, 세일을 하거나 혹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지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깻잎 역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우춘희 선생의 『깻잎 투쟁기』는 손바닥보다 작은 깻잎 뒤에 가리어진 커다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이 책의 부제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이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가 오랜 시간 이주노동자 가까이에서 직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suasdei@gmail.com

접 보고 경험한 것을 글로 풀어낸 것이다. 사건이 벌어지거나 도움을 요청받으면 어디든 부리나케 달려갔으며, 때로는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깻잎을 따며 이들의 삶과 노동 현장 깊숙한 곳을 참여 관찰했다. 비단 한국의 농촌만이 아니다. 캄보디아에서도 현지조사를 수행하며 이주 준비와 이주 과정까지 파악하고자 했다. 덕분에 이 책은 풍부하고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언론 보도만 훑어보거나 형식적인 인터뷰로는 알 수 없는 이주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살아 있다. 그러나 저자는 단지 이주노동자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이 처한 상황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 정책과 제도,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불합리를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균형은 자신을 “이주인권 활동가이자 연구자”로 소개한 저자의 정체성과 역량이 십분 발휘되는 지점이자,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부제를 통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건너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깻잎 생산 현장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캄보디아일까? 2006년 11월 캄보디아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된 이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캄보디아인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비전문취업 자격 입국자 가운데 캄보디아인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이래 그 추세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¹⁾ 특히 비전문취업 세부 업종 가운데 농업(E-9-3)에 한정하면, 전체 발급 대상의 약 41%가 캄보디아인이다.²⁾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연간 전체 캄보디아인 입국자 가운데 비전문취업 자격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매년 조금씩

1) 국가통계포털(통계표명: 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조회기간: 2007~2022년). 2013년(2위), 2018년(3위), 2022년(3위)을 제외하면 캄보디아가 줄곧 1위이다.

2) 국가통계포털(통계표명: 고용허가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현황, 조회기간: 2010~2021년). 해당 통계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국가별 구분 없이 총계만 제공하고 있어 조회기간에서 제외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수치가 80%를 넘나든다.³⁾ 이는 비슷한 규모로 고용허가(비전문취업) 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에 입국하는 캄보디아인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오는 것이고, 이들이 국내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 현장의 비전문취업 노동자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은 캄보디아인이다. 즉,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농산물 가운데 많은 것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쳐 온 셈이다. 갯잎 농사는 특히나 더 노동집약적이라고 하니, 이 ‘투쟁기’의 당사자들이 캄보디아인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비닐하우스 집’부터 ‘코로나19’까지

이 책은 모두 7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각 장의 핵심 주제를 살펴 보면, 주거(1장), 임금(2장), 노동이주 과정과 제도(3장), 갯잎 농업(4장), 고용허가제(5장), 사회·보전 안전망(6장), 사회적 인식(7장) 등으로 나름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물론 이 주제들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법적 기반이 되는 고용허가제는 5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책 전반에 걸쳐 이주노동자의 불합리한 처우를 생산해내는 기제로 작동한다. 약간의 감상이나 논평을 곁들여 장별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여과 없이 고발한다. 포문을 여는 것은 2020년 12월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한파 속에 목숨을 잃은 속행 씨 사건이다. 당시

3) 국가통계포털(통계표명: 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조회기간: 2007~2022년).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자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하여 여전히 회자되는 사건이다. 1장을 읽고 나면 비로소 책 표지 그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표지에는 깃잎을 연상시키는 녹색 바탕에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그려져 있다. 그중 한 동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는 단순히 비닐하우스를 덮은 차광막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곳이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던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가건물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위생이 열악한 것은 물론, 화재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보안이 허술해 늘 걱정과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기숙사비라는 명목으로 비싼 월세를 공제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주노동자 실태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라면 첫 장부터 ‘열악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에 부족한 상황에 충격을 받을지 모른다.

2장 “임금 체불의 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만연한 임금 체불 문제를 다룬다. 사업주 동의, 재입국 특례(일명 ‘성실 근로자’) 등과 같은 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용자(농장주)와 이주노동자는 자연스럽게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로 귀결된다.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일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묵인된다. 저자는 “근로기준법 위에 ‘고용주의 법’”(p.77)이 있다고 비판하지만, 이를 사용자 개인의 잘못으로만 환원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한다.

3장 “사람 없는 인력”은 캄보디아인들이 어떻게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오게 되는지 그 과정과 절차, 그리고 제도적 배경을 설명한다. 특히 장 후반부에서는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하여 탄생한 고용허가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2004년부터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삶을 “‘영원히 일시적인(permanently temporary)’ 상태”(p.127)로 만드는 “단기 순환 노동 이주 정책”(p.124)에 불과하다고 보고, 정부의 노동 이주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

을 주문한다.

4장 “갯잎밭 여성들”은 갯잎 농업의 현실을 묘사한다.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과 농한기가 없으며 거의 모든 것을 사람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노동집약적 특성은 갯잎 농업으로의 전환과 이주노동자의 결합을 가속화시켰다. 미루어 보건대 ‘값싼’ 노동력의 이주노동자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갯잎의 대량 생산은 불가능했을 것이 자명하다.

5장 “합법적 노예 상태와 불법적 자유”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은 물론, 실제 노동 현장과의 괴리가 얼마나 심한지 낱알이 보여준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여러 자유와 권리가 박탈되지만,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오히려 ‘자유’를 얻고 사용자와의 협상에서도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저자는 “제도가 불법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p.169) 고용허가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6장 “고립과 폭력에 둘러싸여”는 이주노동자가 겪는 범죄 피해,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문제를 다룬다. 이들은 피해를 당하는 순간은 물론, 이후의 신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법적 정의를 찾는 것이 너무나 요원한 일이다. 또한 장 후반부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인지,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분석한다.

7장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은 제도적 혹은 관용적 표현, 일상화된 욕설과 비인간적 처사, 이주노동자 집단을 사회의 위험한 존재로 전제하고 진행하는 불심 검문이나 전수조사는 낯선 타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필요에 따라 생성된 집단이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 건설, 서비스 등 산업 각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저자는 이제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할 때라고 역설하며 책을 끝맺는다.

‘무감한 공모’를 넘어

책을 다 읽고 나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깻잎이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주노동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고된 환경과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서점이나 블로그에 게시된 리뷰를 훑어봐도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다. 간간이 미디어를 통해 이주노동자 뉴스를 접하긴 했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처 몰랐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설가 최은영은 추천사에서 “나의 무감한 공모를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아팠다”고 술회한다. 이 책을 읽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대상은 깻잎 농장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이 깻잎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에서만 펼쳐지는 것도 아니며, 캄보디아인에게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투쟁기 덕분에 조금은 더 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던’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저자는 책 곳곳에서 시중에서 흔히 유통되는 저개발국가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사나 편견을 보기 좋게 반박한다. 이를테

면 여전히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에 대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불법 운전자’라고 하지 않듯이, 초과 체류한 이주민에게 ‘불법 체류자’라고 할 필요가 없다. …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 없[다]”(p.222)고 강변한다. 저소득국가에서 왔으니 법정 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큰 액수 이기에 괜찮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주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 준다.

“그래요? 우리가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최저임금의 절반만 준다고요? 그럼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세금도 절반만 낼게요.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음식 값도, 버스 값도 절반만 낼게요. 그러면 될까요?”(p.94)

이러한 비유는 학술적 설명보다 훨씬 더 쉽고 강력하게 와 닿는다. 연구자로서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게 표현한 것은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이다. 덕분에 이주노동이나 캄보디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한 북토크 행사에서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묻는 질문에, 비록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지만 이주노동자가 길게는 10년 가까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주노동자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모습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한 바 있다(니은서점 2022). 아마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저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우리 사회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의 변화를 이끌 만큼 충분히 ‘불편한’, 그래서 충분히 좋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주노

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2023년 2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되었다. 그동안 몇몇 자치단체에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나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주노동자(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다룬 자치법규는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특히 이전의 다른 조례들이 원론적인 내용과 지원센터나 쉼터 설치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의 조례는 인권보장, 근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무엇보다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고 올해부터 도 예산을 마련해 기숙사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박다예 2023; 최찬홍 2023). 부디 속행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러한 변화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고대하며 서평을 마친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니은서점. 2022. “하이엔드 북토크 [깟잎 투쟁기].”

<https://www.youtube.com/watch?v=vFLT30iJ5u8>

박다예. 2023. “‘속행씨법(故 캄보디아인)’ 상임위 통과...현장, 환영 목소리.” 『인천일보』. 2월 8일.

최찬홍. 2023. “경기도의회, 전국 첫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조례안’ 의결.” 『연합뉴스』. 2월 14일.